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2

일요일 밤에는 전철로 오쿠타마(奥多摩)로 돌아오려고합니다. 모레는 다시 방호복을 입고 폐쇄중인 경계 구역내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려고합니다. 갈 때마다 삼시간에 폐허로 변해가는 고향과 저희 집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어쩔수없다고 주저않아 낙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한 순간의 꿈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꿈이라면 제발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습니다.

진정 평온한 나날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거실에 엮드려 신문을 펼쳐보거나 하품을 하며 한가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바람은 당분간 보류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배상청구서류를 준비하거나 피난을 위한 사무처리 등으로 지쳐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된 일련의 지진재해가 어느새 세월을 한바퀴를 돌아 다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대지진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감개깊게 느끼면서도 이렇듯 오래도록 얽어 끌려가고 있는 것에 진저리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 정도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비통한 한계점을 이미 오래 전에 넘었습니다'라고 쏟아부을 곳이 없는 이 심정을 어딘가 누군가에게 목이 쉬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 심정도 아랑곳 없이 이 길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집을 잃은 연세드신 분이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을 위해 아파트 건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어서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 휩쓸려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격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걱정 근심이 제 마음 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행동에서 행동으로, 결단에서 결단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이 현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아파트 건설을 착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건강에 대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한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격무로 적당히 긴장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제게 격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건축하게 된 교회는 제가 스물다섯의 나이로 목사가 되고나서 정확히 열번째 되는 건물입니다. '저는 건축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년전 새 교회을 건축할 당시는 이 교회가 마지막 건축이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력은 제 전력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또 다시 교회를 세우고 게다가 난생처음 아파트 건축일에 몰두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길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지진 재해 이후로 가정 환경에서, 일의 내용에서, 인생의 무늬가 격렬하게 흔들린 후에 모든 것이 일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건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겨를도 없이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은행차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주어진 현금범위 내에서만 건축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건물을 위한 건축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건축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범위에서만 건축하였고 모험은 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고 아파트도 교회도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진재해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지요?

자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사인은 과감하게 물위로 한 걸음 발을 내디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인지요?

지진재해 이후로는 전혀 생각짚은 일들이 계속되어 하루 하루가 마치 드라마를 보고있는 듯합니다. 3 월 11 일 이후 8 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도 비일상적인 나날들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전긍긍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필요한 모든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전에도 서류수속상으로나 시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낙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청에서 허가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담당해 주신 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날개 반쪽을 잡아뜯기고도 이제까지 참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어 온 교회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쪽 폐 상태로 살아 있는 것 자체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은 언제나 아무 걱정없이 지진재해에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도님의 자녀들이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등을 돌리고는 훌쩍훌쩍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작스레 친구와 고향과 학교를 빼앗기고는 외톨이가 되어 전학을 되풀이 해야하는 너무나도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에 상처받지 않을리가 없었겠지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상처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집 애견도 지진재해의 나날을 견디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바쁜 나머지 부재중일 때가 많아서 저희 아들 집에 애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다시 이집 저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보아주는 분들께 고맙기도 하고 애견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애견은 13 년전에 사토가(家)에 들어와 지금은 나이들어 눈은 백내장이고 귀도 멀어졌습니다.

늙은 애견에게도 지진재해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주인과 떨어져 여기 저기 모르는 곳에 맡겨진 채 그야말로 지진 재해의 큰 파도 잔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저희집 애견이 딱하고 가여워서 겨우 스케줄의 틈을 내서는 밤 늦게 30-40 분정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동안 안아주어도 아들의 뒤만 쫓으며 원래 주인인 나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서먹서먹한 눈으로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묘한 이 거리감을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왠지 슬프게 느껴지는 애견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저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파피(애견 14 세 파피온(papillon)). 지진 재해라 어쩔수 없구나 용서해. ”라고 사과했습니다만 이런 잠깐의 위안의 말도 이젠 무의미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다시 나를 배웅하는 모습은

‘역시 또 다시 나를 두고 가네, 이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이상 마음 문 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진재해는 이제까지의 모든 유대관계를 무정하게 찢어가르는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기다려 파피! 파피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데리러 올게 그 때까지 건강해야해. 다음에 만날 때는 반갑게 달려와 마음껏

안기럼 여태까지 못 해준 만큼 더 많이 안아 쓰다듬어 줄게 마음껏 응석부리렴.  
지진재해가 끝나면 예전처럼 함께 살자. 그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주렴. 잊지  
않고 있단다. 사랑스러운 파피에게’  
이런 마음의 편지가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11 월 1 일(화) 에 쓰기 시작한 일기를 지금 다시 고집어내서 후일담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짬을 낼 수가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동북지방의 야채 절임도 아닌데 일기를 절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는 후지하코네(富士箱根)를 출발해서 사가(佐賀)로 향하는 비행기내입니다.

11 월 10 일 하네다(羽田) ~ 후쿠오카(福岡)편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